

사설

진정으로 빛을 얻기 위해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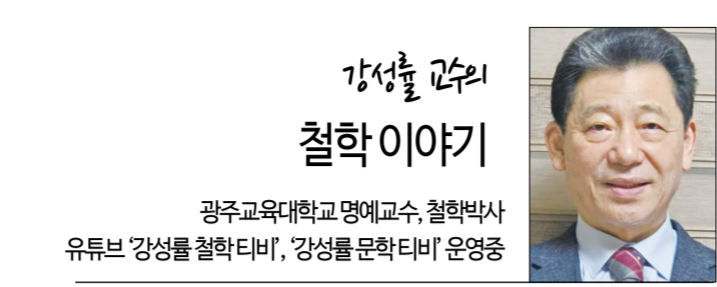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고 있다. 그러나 어둠이 빛을 이겨 본적이 없다.” 성서에 나온 말이다. 그렇다. 언제나 빛이 이겼다. 누구나 빛을 원한다. 하지만 원한만큼 주어지지 않는다는. 간절함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실천이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간절히 노력한 만큼만 주어지기 때문이다. 캄캄한 밤에 성냥불을 켜면 그 불빛만큼만 밝음을 얻을 수 있다. 하늘에서 빛나는 별도 역시 자신이 빛어내는 것만큼만 얻는다. 칠 휴 같은 어둠속을 자동차를 몰고 달려보면 언제나 헤드라이트 불빛만큼만 주변이 환하다. 그 이상의 빛을 요구해야 결코 얻을 수 없다. 더 얻으려면 뭔가 구조를 바꿔야 한다. 어둠은 두려움이다. 두려움을 갖게 되면, 그래서 그 두려움에 지게 되면 결코 빛을 가질 수 없다. 때문에 두려움을 이겨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변해야 한다. 변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구조 조정해야 한다. 구조 조정하기 위해서는 낡은 사고와 습관을 개선해 가야 한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부분에서 두려움을 갖는다. 선뜻 결정을 못한다. 생각을 갖고 있지만 실천을 못한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보다는 실패한 사람들이 더 많다. 따라서 불행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이다. 음식물도 지천으로 널려 있다. 몇 십 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풍요다. 하지만 병마는 훨씬 더 많다. 그 중요 원인 중 하나는 음식조절능력 부족이다. 필요한 양보다 더 많은 음식물을 섭취하기 때문이다. 건강을 망치는 지름길인데도. 섭취하면 그만큼 운동 등을 통해서 소모해야 한다. 물론 한계선을 넘는 운동은 독약이다. 이 모든 조건을 갖추어야 무병장수할 수 있다.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럼에도 각종 질병에 시달리다 죽어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다. 왜 그럴까. 실천하지 않기 때문이다. 잘못된 습관을 고치지 않고 사랑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알면서도 고통을 받으면서 서서히 죽어가는 것이다.

이처럼 습관을 고치기가 쉽지 않다. 자신의 빛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빛을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 가진 만큼 행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윈스턴 처칠 전 영국 수상이 한 유명한 말이 있다. 옥스퍼드 대학 졸업식장에서. 그가 한 말은 반복된 단 세 마디였다. 주어진 시간은 6분이었는데도. 식장에 조금 늦게 도착한 중절모와 두꺼운 코트의 노신사. 졸업생들을 비롯한 참석자들의 환호를 받으며 단상 앞으로 느릿느릿 걸어갔다. 연료하고 약간은 지쳐 보이는 듯한 그는 당당하고 꼳꼳하게 섰다. 약 1분 동안 청중들을 그윽하게 바라본 뒤 “Never Give Up!(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이라고 했다. 청중들은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할 것인지를 숨을 죽이며 기다렸다. 그런데 그는 약 40여초 동안 청중들을 바라보기만 했다. 그런 다음 우렁찬 목소리로 다시 “Never Give Up!”이라고 외쳤다. 이때 청중들은 제2차 세계대전 때 나치가 학교, 성당, 집 등을 폭격하던 때를 생각하며 눈시울을 적셨다. 침묵 속에서 나이 어린 학생들까지도 눈물을 흘렸다. 노 정치가는 마지막으로 다시 “Never Give Up!”이라고 큰 소리로 외쳤다. 그런 다음 모자와 코트를 집어 들고 뚜벅뚜벅 걸어 나갔다. 이것이 가장 짧으면서도 청중들을 뜨겁게 감동시킨 역사에 길이 남을 명연설이었던 것이다. 그렇다. 어떠한 경우에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진정으로 빛을 얻기 위해서는. 빛은 언제나 어둠을 이기기 때문이다.

어느 날 중국의 철학자인 장자(莊子)의 아내가 죽고 말았다. 이때 친구 혜사가 문병을 왔는데, 장자 장자는 물동이를 두드리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혜사가 그 까닭을 묻자, “(나의 아내)는 본래 삶도 형체도 없었고, 그림자조차 없었지 않은가? 이제 그녀도 죽었으니, 이것은 춘하추동의 변화와 같은 것이네. 그녀는 아마 한 칸의 거실 안에서 단잠을 자고 있을 걸세. 내가 처음에는 소리 내어 울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 가소롭게 느껴졌다네.” 라고 대답하였다.

평소에 장자의 친구이자 논객(論客)이었던 혜사(惠施, 기원전 370년?~310년?)는 송나라(현재 하남성) 출신으로서, 위나라 혜왕의 재상을 지낸 적이 있으며 학식 또한 넓었다. 두 사람 모두 박학다식한 데다 말솜씨 또한 무척이나 날카로웠다. 하지만 장자가 ‘만물일체론’(“모든 사물은 서로 얽혀 하나의 전체를 이루고 있다.”)에 입각하여 천인합일(“자연과 인간이 본래 하나임”)의 경지에 도달해 있던 반면, 혜사는 사물의 관계를 엄격히 구별하고자 하였다.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으면서도 경쟁심 또한 대단했던 것



강성열 교수의 철학이야기
광주교육대학교 명예교수, 철학박사
유튜브 '강성열 철학티비', 강성열 문학티비 운영중

철학자들의 우정-장자와 혜사(1)

로 집착된다. 혜사가 재상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친구인 장자가 그를 만나러 간다. 이때 어떤 사람이 혜사에게, “당신 보다 재주가 훨씬 뛰어난 장자가 온다. 그렇게 되면, 재상 자리도 지키기 어려울 것이요.”라고 말했다. 이에 당황한 혜사는 부하들에게 장자를 찾아오도록 하였다. 그러나 꼬박 3일 동안 찾았지만 발견할 수가 없었다. 이때 장자가 스스로 찾아와 이런 말을 하였다.

“남쪽 지방에 봉황새의 한 종류인 원추(鸞雛)라는 새가 있었는데, 이 새는 남해에서 북해로 곧장 날아간단네. 그 새는 먼 길에도 불구하고 ‘오동나무’가 아니면

쉬지를 않고, ‘대나무 열매’가 아니면 먹지를 않으며, 단샘(醴泉)의 물이 아니면 마시지를 않지. 그런데 어느 날, 썩은 쥐 한 마리를 물고 그 새의 아래를 지나가던 술개가 혹시 그 원추새가 먹이를 빼앗지나 않을까 염려하여, 머리를 쳐들고 끼하고 울었다네.(이때 입에 물고 있던 쥐는 어떻게 되었을까?) 지금 그대도 이 술개처럼, 양나라의 재상 자리를 나에게 놓칠까봐 큰소리를 지르는 것이 아닌가?”

위 내용 가운데 ‘오동나무’의 목적은 나무결이 아름다우며 재질이 부드럽고, 습기와 불, 벌레에 잘 견디며 가벼우면서도 마찰에 강해, 책상이나 장롱 같은 가

구를 만드는 데 좋은 재료로 쓰인다. 옛날에 딸을 낳으면 오동나무를 심어 혼수(婚壽)를 대비하기도 했다. 또한 목재의 울림이 좋고 소리를 잘 전달하는 성질이 있어 거문고, 비파, 가야금 같은 악기를 만드는 데에도 쓴다. 한방에서는 줄기와 뿌리, 껍질을 치질이나 타박상, 뼀 곳, 악성 종기 따위에 약으로 쓴다. 오동나무는 정원에 관상수로 심기도 한다.

‘대나무 열매’ 역시 ‘신선과 학은 오로지 이슬과 대나무 열매만 먹는다.’는 전설이 있을 정도로 신성한 열매이다. ‘대나무 열매’는 아예 있을 수 없다는 주장도 있으나, 대개는 꽃도 피고 열매도 맺는다고 본다. 그 주기는 대략 60~120년인데, 일생 동안 오직 한번 꽃이 피고 동시에 열매를 맺은 뒤 말라 죽는다고 한다. 이처럼 귀하고 아름다운 ‘오동나무’ 위에서만 쉬고, 신성한 ‘대나무 열매’만 먹는 새는 그만큼 깨끗하고 고상하다는 뜻이라. 벼슬에 마음을 비운 장자의 심경을 알아차린 혜사는 그제야 비로소 왕과 만날 수 있도록 주선해주었다.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교통법규 준수로 농기계 교통사고 예방에 동참하자

가을철 수확기는 농민들이 1년여 동안 땀 흘린 농사의 결실을 거두는 시기이다.

또한 가을 수확을 위한 각종 농기계가 도로를 자주 이동하는 시기로 농기계와 자동차 간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여 차량 운전자와 농민들이 소중한 생명을 잃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사고가 발생하는 농기계 대부분은 경운기, 트랙터, 농사용 지게차, 사발이로 도로 주행 시 차량과 농기계간 추돌로 차량 운전자와 농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고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운전자들의 안전운전 수칙 미준수로 인한 사고로 이어지고 있다.

농기계 운전자들 또한 안전의식 부재도 하나의 원인인 바, 이는 도로 주행 시 농기계의 정확한 조작 방법 미숙으로 인한 경운기, 트랙터 및 지게차의 전도, 끼임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차량 운전자들은 농기계의 특성을 간과한 채 ‘피하겠지’ 하면서 과속을 하거나, 전방주시를 게을리하다가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도 다반사이다.

따라서, 농기계 사용자인 농민뿐만 아니라, 차량 운전자들 또한 농기계의 특성을 정확히 인식하고 수확기 농기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기적으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도로를 주행하는 농사용 지게차의 경우 운전자들이 지게차의 특성을 간과한 채 무리하게 운행하다 내리막길에서 전도되어 지게차에 깔려 사망하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바, 농사용 지게차의 안전한 조작

방법을 숙지하여 안전 운전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시기적으로 수확기 농기계를 다루는 농민들은 반주로 막걸리를 마신 후 농기계를 운전하는 경우가 있는 바, 농기계 운전 중에는 절대로 음주운전은 삼가 해주시길 당부드린다.

농민들의 안전한 농기계 사용과 더불어 운전자들의 교통법규 준수로 더 이상 농기계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하지 않기를 그리고 소중한 인명손실이 없길 바라며, 1년간 땀 흘린 결실인 풍성한 가을 수확을 기원해 본다.

고흥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경감 곽현태

오늘의 운세 2025년 12월 1일 월요일 (음력 10월 12일)

<p>43년생 갓난가득 풍성한 날이 넘쳐나고 60년생 기쁘다 싶어 고민을 더해보자. 72년생 금지 않은 눈치도 모른 채 해야 한다. 84년생 무한 긍정이 큰 웃음을 선물한다. 96년생 기쁘게 하라. 자는 쪽을 택해보자.</p>	<p>49년생 요란한 박수의 기분이 들린다. 61년생 안과 밖 경사에 총사위 가 걸로 난다. 73년생 가능한 목표에 도전장을 던져보자. 85년생 작지만 소중한 직책이 맡겨진다. 97년생 무모한 도전 비싼 값을 치러야 한다.</p>	<p>50년생 옛날의 기대수명을 서두르자. 62년생 동전 한 닢의 가치 낭비를 막아내자. 74년생 술한 번의 흔적 지워내자. 86년생 함께 하자. 98년생 글로 배운 솜씨에 경험을 더해보자.</p>
<p>51년생 기대하던 거래 도장이 찍혀진다. 63년생 사랑이 먼저 오는 만남을 가져보자. 75년생 귀로 듣지 마라. 발품을 팔아보자. 87년생 불투명 한 미래 기르침을 받아보자. 99년생 경직히 흘린 땀의 대가를 받아보자.</p>	<p>52년생 깎아달라 흥정 달까지 받아낸다. 64년생 든든한 지원군이 날개를 달아 주자. 76년생 말없는 충고를 허리 숙여 받아내자. 88년생 예쁜 마음씨로 칭찬을 받아보자. 100년생 하려고 하는 의지 정수로 매겨진다.</p>	<p>53년생 도망치고 싶어도 정면부 해. 65년생 힘들다 하는 표정 본 전도 못 건다. 77년생 다시 보니 제자리 반성문을 써. 89년생 반듯한 정사로 지갑을 싹쓸이하자. 101년생 말릴 수 없는 처지 구경에 그쳐보자.</p>
<p>54년생 평범한 행복에 구름을 지켜. 66년생 열심히 했던 노력 세상에 알려진다. 78년생 밤 깊은 줄모르는 재미에 빠져보자. 90년생 아쉬움 이 남았던 꿈을 다시 하자. 102년생 또박또박 대답 시시비비 가려내자.</p>	<p>55년생 눈물이 그렇그렁 촉촉을 받아보자. 67년생 비고 불기 으뜸인 실력을 펼쳐. 79년생 주머니 든든하니 만사가 여유롭다. 91년생 기특한 일을 했다. 상을 받아보자. 103년생 아기가 아니다. 어른답게 행동하자.</p>	<p>56년생 고맙다 표현이 없어야 한다. 68년생 처음의 길은은 꽃으로 변해진다. 80년생 반기음 보다는 미안함이 앞서 온다. 92년생 반쪽짜리 인연과 눈빛이 오고간다. 104년생 서툰 짜리 자존심 버릴 때가 필요하다.</p>
<p>57년생 기쁘고 아름다운 결과가 남겨진다. 69년생 언제나 설레지는 걸음을 걸어보자. 81년생 금한 볼 꺼지니 한숨이 돌려진다. 93년생 우산인 대경에도 겸손해야 한다. 105년생 책임지는 자세 단단함이 더해진다.</p>	<p>58년생 늦게 오는 반응 참는 법을 배우자. 70년생 앞서도 있어도 방심은 금물이다. 82년생 과거를 버리고 새로운 행에 기가. 94년생 믿거나 말거나 진심을 보여보자. 106년생 어렵다 중도 포기. 고리가 달려진다.</p>	<p>47년생 고생 끝에 나, 무용담이 펼쳐진다. 59년생 혼자는 쓸쓸함과 맞서 싸워보자. 71년생 믿지 못하는 불신, 보따리를 싸. 83년생 결은 결공부도 열심히 해야 한다. 95년생 끈기 열정으로 부푼 꿈을 향해 가자.</p>

광전매일신문 e-mail : gwangmae5678@hanmail.net

회장이 송암	발행인·대표이사 정길화
편집인 전광춘	편집국장 박선주
2016년 8월 3일 등록번호 광주 가 00065	광주광역시 광신구 광신로 20번길 8, 2층
대표전화 (062) 525-9775	<팩스> (062) 528-4566
회장실 (내선) 210	편집국 교 2001
임원실 (내선) 207	경영부 교 2003
총무국 교 2002	사회부 교 2004
광고국 교 2006	사업국 교 2007

인쇄(주)대 한칼라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월 3,000원 · 147,000원

경부고속도로 개통 50년,
대한민국의 생명선을 만들다!

대한민국과 함께 성장한 고속도로
고속도로는 대한민국의 생명선이었습니다.
기적의 50년! 희망의 100년!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